



아도화상 전법 원력 솔바람이 전하는 듯

선산 도리사(桃李寺)는 신라불교의 초전법륜지이다. 신라에 불교가 공인되지 않았던 놀지왕 시절에 아도화상이 불법을 전할 목적으로 고구려에서 넘어와 낙동강변의 모래네 집(毛禮之家)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여러 해 동안 전법을 했다. 그 인연으로 모래 장자의 도움을 받아 선산 도리사를 창건했다. 모래네 집이 있었다고 전해오는 도개마을까지는 선산읍에서 낙동강 일선교 다리를 건너 지척이다.

하지만, 옛 일을 전해줄 유물이란 돌로 된 우물 하나 뿐이다. 우물 주위의 식생조경은 세월이 비틀린 향나무 한 그루와 늙은 갈나무 몇 그루가 전부이다.

이곳 모래정 옛 터는 백용성 선사가 젊은 날 수행했던 곳으로, 선사의 문도들이 주위의 땅을 매입하여 성역화를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다. 근래 지어진 아도모래원과 전사관이 성역화의 중간 결과물이다.

아도모래원에서 도리사가 있는 해평면 송곡리까지는 10여분 거리이다. 길은 낙동강 분류와 함께 달린다. 낙동강이 사행(蛇行)하면서 해평면과 고아읍 곳곳에 습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근래들어 습지에 남아있는 겨울철새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해평 습지의 철새 가족 가운데 눈에 띄는 진객으로는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이다. 해마다 10월 중순경이면 수 백마리가 날아와 보름 정도 머물러 간다. 흑두루미는 러시아 아무르강 등에서 번식한 뒤 중국과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이즈미시나 가고시마현에서 대부분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세계 흑두루미의 약 80%가 일본에서 겨울을 나는데, 그 중 50%가 이곳 해평습지를 경유하고 있다.

산자락 일부와 골짜기를 제외하면 소나무 단층림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냉산에 소나무가 많다. 도리사의 송풍(松風)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생태적 가치도 매우 높다. 냉산의 소나무는 전형적인 적송이다. 수령이 1백년 가까이 노송도 있고 어린 소나무들도 있어서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5년도에 솔잎혹파리를 방제하기 위하여 항공방제를 했고, 올해(2006년)는 미리 재선충 예방 방제를 하였다.

상수리는 몇 가지 참나무 종류 가운데서 마을 산자락에서 많이 자란다. 왕조실목에 보면 흥년에 승군(僧軍)들을 동원하여 상수리를 파서 구황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곳 상수리나무에도 사람들이 상수리를 따기 위해 뜰메로 친 상채기가 남아있다. 눈발이 내린 늦가을이라 대부분의 초본류들은 이미 보이지 않고, 겨우 몇 종류만 인간힘으로 남아있다. 꽃이 핀 것으로는 산부추, 쑥부쟁이, 구절초가 관찰되었다.

산부추는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대개 가을에 꽃대가 올라와 연보라빛 꽃을 피우지만, 더러는 눈발 흘날리는 늦가을까지 꽃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잎은 부추잎과 흡사하고, 뿌리는 파뿌리처럼 생겼다. 산골사람들은 즐겨 먹지만, 스님들은 오신채라 하여 금기시한다. 도리사라는 이름은 아도화상이 절터를 찾던 중 겨울에 복사꽃과 오얏꽃이 핀 것을 보고는 지었다고 전한다. 복사꽃과 오얏꽃은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봄의 전령사이니, 신라불교의 초전법륜지에 잘 어울리는 꽃나무들이다.



모래네 우물.



도리사 '소나무야 놀자' 학교 현수막.

하지만, 도리사라는 절 이름에는 또다른, 아도화상의 간접한 전법 소망이 깃들여 있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桃李不言(도리불언) 下自成蹊(하자성혜)'라는 글귀가 있는데, 산중의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 아래는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레 길이 생긴다는 말이다. 따라서 아도화상이 많은 이들이 불법(佛法) 아래로 모여들기를 바라는 간접한 염원으로 복사꽃과 오얏꽃을 빌어서 도리사라고 이름 지었을 것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창건 전설에 나오는 복사나무와 오얏나무가 경내의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왕이면 다른 나무들보다 복사꽃과 오얏꽃을 볼 수 있도록 조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리사 경내에 들어서니 큰오색딱따구리 한 마리가 나무를 옮겨다녀 나무를 쪼고 있다. 딱따구리 종류들은 나무들의 의사이다. 나무 속에 숨어있는 벌레들을 찾아내 없애준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무가 불러서 나무가 나무 왕진 다니는 것이다. 소나무 숲이 우점하고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라 도리사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상은 다양하지 못하였다. 박새류와 딱따구리류를 비롯하여 직박구리, 까치, 동고비 등의 조류가 몇 개체씩 출현하였다.

근래들어 불사에 정성을 기울여 구태를 크게 쇠신한 도리사는 고금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보물인 화엄석탑과 세존탑과 사적비는 도리사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고, 태조선원과 극락전은 고색으로 옛 사격을 지켜주며, 적멸보궁과 설선당과 수선당은 오늘의 도리사의 사세를 말해주고 있다. 도리사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은 선도적이며, 그 결과도 가시적이다. 최근 도리사가 기획하고 실행하는 '소나무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은 환경계몽을 생태교육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그러한 건설과는 동떨어진 몇 가지 시행착오는 적어 유감이다. 그 중 하나가 주지(임화실)를 짓는다고 산을 깎고, 많은 소나무들을 베어낸 것이

다. 물론 건축허가를 받고 벌이는 불사이겠지만, 아무리 당국에서 허락했다고 해도,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불사를 강행하면 불교에 대한 불만세력을 자꾸만 만들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기 위해 소나무 숲속의 관목층을 모두 베어내고 수십 개의 의자를 비치하여 마치 공원처럼 조성한 것도 반생태적이다. 시민들의 사찰 탐방은 말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의 편의만을 위해 사찰 주변을 공원화하는 것은 수행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리사는 성철스님을 비롯하여 현대한국불교의 내노라하는 고승들이 거쳐간 선 수행처로서, 예로부터 남승들 사이에서는 팔공산 성전암, 비슬산 도성암 등과 함께 경북의 3대 선 수행처로 알려져 온 곳이다. 그런 곳인만큼 도리사의 관광지화는 좀더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도리사 경내 안팎에는 갈참나무와 굴참나무 등 늙은 참나무 20여 그루가 포진해 있다. 식재된 조경 목본류로는 태조선원 앞의 불두화와 백목련, 종각 주변의 영산홍과 철쭉, 적멸보궁 앞의 쯤썩광나무, 설선당 아래쪽의 남천, 사리탑 앞의 팽자나무 등이 있다.

남천은 매자나무과에 속하는 늘푸른 관목으로, 일본과 중국 남쪽을 원산지로 한다. 기온이 따뜻한 남부지방 사찰에서는 노지 재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경수로 적합하다. 도리사 남천은 노지에 심은 최북단 남천일 수도 있겠다. 키는 3미터 정도로 자라지만, 도리사 남천은 기후 관계로 키가 작다.

극락전 앞 소나무 숲 속에는 아도화상의 좌선대가 있다. 전설의 좌선대는 도리사가 없는 형국을 고려했을 때 망탑이나 풍수비보탑의 지대석으로 추정된다. 윗면만 가공한 점이라든지 좌대의 윗면이 사각인 것을 보면 그것이 땅속에 묻혀있었던 석탑의 지대석이 있음을 유추해 해준다. 좌선대와 비석이 서 있는 주변의 소나무 군락은 간벌의 시기를 놓쳐서 즐기들이



도리사 소나무 숲과 좌선대.

가늘고 구불구불 휘어져서 재목감으로는 마뜩찮지만, 솔향과 솔바람은 여전히 청량하다.

적멸보궁 방향 하산로 일대에는 주로 조경용으로 심는 외래종 스트로보잣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아쉬웠다. 능선에서 정상에 이르는 구간에서 관찰된 초본으로는 예기나리, 세일양지꽃, 이고들빼기, 솔나물, 똑갈, 구절초, 약새, 산겨울, 삼주, 맑은대축, 일월비비추, 기린초 등이 분포하고 있다.

최근 구미시에서 모래정, 도리사, 청화산, 냉산, 배틀산, 해평습지 등을 잇는 해평권 지역을 문화관광지

구로 지정하여 개발키로 하였다. 도리사가 앉은 냉산 지역은 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삼질이 이미 시작되어 여기저기 생채기가 드러나고 있다.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녹색환경도시'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저질러지는 반생태적인 개발을 지역불교계가 비판없이 수용하는 것은 수행환경 보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삼질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도리사에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감시하고 또 감시할 일이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모래정 옛 터, 백용성 선사 수행터로 성역화 한창
해평 습지 철새중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진객중 진객
도리사 적송 생태적 가치 높고 세대교체도 잘 돼
'소나무야 놀자' 환경 계몽 펼쳐 지역사회 활동 앞장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 사진제공=원우 스님

※ 본 광고는 현대불교신문사를 응원하는 격려 광고입니다



"송광사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아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한국불교의 큰 자산으로서 그 중대한 역할을 응원합니다"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 광 사

방 장 범일보성
주 지 영조

사부대중 일동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화 061)755-0108 www.songgwangsa.org